

보도시점 2024. 5. 16.(목) 10:00 배포 2024. 5. 16.(목) 09:00

## 금융위원장, 벤처업계 현장간담회 개최

- 김주현 금융위원장, 벤처업계 자금상황 및 애로사항 청취
- 금년 15.4조원의 정책금융을 벤처시장에 공급하고 초기기업 지원을 강화
- M&A 등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지방창업생태계 육성, 해외진출 및 해외 투자유치 확대에도 집중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5월 16일 마포 프론트 원(박병원 홀)에서 「벤처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정과제32.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이날 간담회는 지난 해 4월, 벤처투자 호한기에 대응하여 마련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 등 정책금융지원의 효과를 점검하고,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 속에 벤처업계의 자금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용린 박사는 글로벌 벤처시장의 위축 속에서도 국내 벤처투자는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 등으로 일부 회복신호가 나타나며 해외 시장 대비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침체기의 완전한 극복에는 최소 2~3년이 소요될 수 있어, 지속적인 정책당국의 지원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①M&A를 통한 사업확장기업, ②지방소재기업, ③해외 진출과 해외투자유치 기업이 참석하여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었던 정책 지원\*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역할확대를 요청하였다.

\* ① A기업은 산은의 인수금융과 투자유치 지원을 통해 M&A에 성공

② 지방소재 B기업은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신보) 투자제약조건 배제 이후, 신보 투자를 유치

③ C,D,E기업은 신보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기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현지 연계사업에 도움을 받아 해외진출에 성공하였으며, F기업은 산은 글로벌 IR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투자를 유치하여 사업기반을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벤처업계에 대한 자금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금년 벤처지원 방향을 밝혔다.

우선, 작년 보다 약 30% 증가된 15.4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여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특히, 창업 초기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IBK벤처투자를 통해 향후 3년 내 5,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IPO중심의 회수시장 개선을 위해 산은·기은의 세컨더리 펀드(1.2조원 규모)가 조성되어 금년 5월부터 본격적인 투자집행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연말에 개설한 IBK M&A센터를 통해 M&A 기업정보플랫폼 기능을 강화하여 중개·주선과 자문을 제공하면서 3천억원 규모의 인수금융도 신속히 집행한다. 벤처펀드의 구주매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재 샌드박스도 지정하여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투자유치 기회가 적은 지방소재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 플랫폼을 부산과 광주에 연내 추가로 개소하고, 지역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상품 마련과 보증연계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 신보는 지방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지방기업에 투자하는 VC 9개사와 협약을 체결(23.11월)하고 투자기업 공동 발굴, 공동IR개최, 기업정보 교류 등 협력 중

해외투자유치를 통해 사업확장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거나,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벤처기업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한 지원도 확대한다. 산은 넥스트 라운드 등 대규모 IR 행사의 해외투자자 초청과 해외 현지 개최를 늘려가고, IBK창공(미국 실리콘밸리, 독일 잘란트) 등 해외 거점을 활용한 비금융 지원(사무공간, IR, 해외기업 연결, 컨설팅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벤처기업육성과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담당 부서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허 성 (02-2100-2862)

